

한라. ~~금강~~반 학습 계획

일시 : 2018년 4월 28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한국어 지문을 읽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다.
 2. 영어 지문을 읽고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3. 한국 시 한편을 골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다.

교재 :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6-1, 100대 민족문화 상징자료,

교시	수업 내용
1교시 9:30-10:20	숙제 검사 및 쪽지시험 김소월 <진달래꽃> 감상하고 번역본으로 읽어보기
2교시 10:20-11:05	번역대회 연습(영한, 한영)
점심 11:05-11:25	
3교시 11:25-12:40	사물놀이 sat 한국어 문법 공부하기

숙제

1. 8급한자 쓰고 문제 풀기
2. 관용어 읽고 문제 풀기
3. 시 한편 영어로 번역한 것 수정하기
4. 읽기 자료 읽어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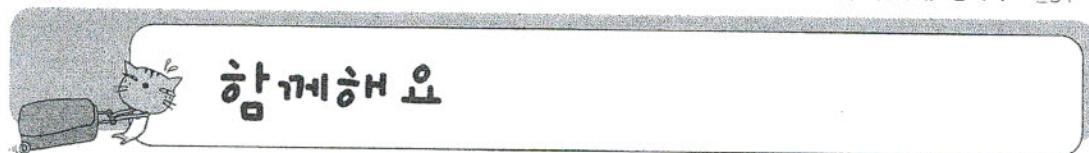
지난 주에 봄방학으로 한 주를 쉬었고, 여행 다녀오느라 그 전 주에도 못 본 학생이 많아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수업을 한 것 같습니다. 교지(Year book)에 우리반에서는 각자 고른 한국 시 한편을 번역해서 낼 것입니다. 이미 시를 선정했으니 다음 주 까지 번역을 해오면 저와 함께 어색한 부분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번역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연습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바자회가 열립니다. 부모님들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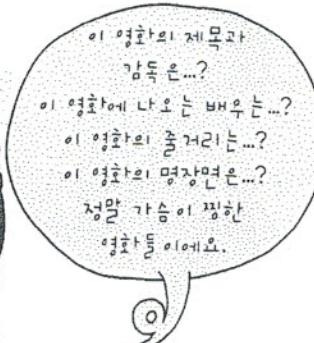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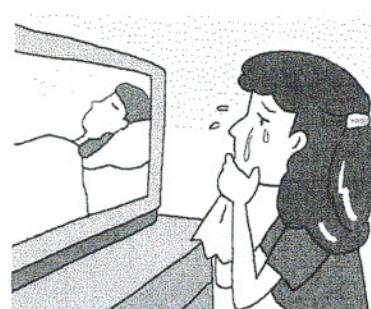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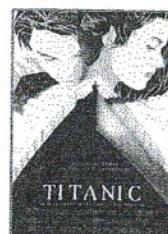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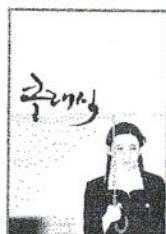
<봄학기 행사일정 >

5월 5일 : 번역대회, 봄 바자회

6월 16일 : 봄학기 종강식



다음은 민지가 생각하는 가슴이 찡한 영화들이에요. 영화 포스터를 보면서 이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 여러분이 본 영화 중에서 가슴이 찡한 영화는 무슨 영화였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한국어

- ☞ 코끝이 찡하다(=) 고향에서 온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코끝이 찡해졌어요.
 - ☞ 가슴(이) 아프다(☞) 슬프거나 안타깝다
 - 병원에 누워 있는 친구를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
 - ☞ 찡하다☞ • 그 소설책을 읽고 찡한 감동을 받았다.

CH ๘๔



지 영: 에릭 씨, 이 신문 기사 좀 보세요.

에 릭: 어디요? 재미있는 기사라도 있어요?

지 영: 아뇨, 가슴 따뜻한 얘기가 있어서요. 어느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발 벗고 나서서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었대요

에 릭 : 그렇군요. 힘들게 번 돈을 장학금으로 내셨다니 정말 홀륭하시 분이네 ♪

지 영: 네.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숨지 않은 일이에요.

에 릭 : 우리도 이 할머니처럼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기로 해요

발(을) 벗고 나서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1960-1961

민수는 어떤 어려운 일에도 발 벗고 나선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피해가 큰 지역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나: 국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면 좋겠어.

- 신문 기사 나서다 가난하다 벌다 헐륭하다 세상 총수
 피해 지역 대통령 국민 -다니

11 가슴(이) 찡하다 12 발(을) 벗고 나서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가슴이 찡하다 가슴이 아프다 발을 벗고 나서다 팔짱만 끼고 있다

1 가: 친구가 많이 다쳐서 _____.

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나을 거예요.

2 가: 요즘은 다른 사람의 일에 _____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 맞아요. 모두 자기 일이 바쁘니까요.

3 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지하철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대요.

나: _____ 소식이네요.

4 가: _____ 멜로 영화 한 편 소개해 주세요.

나: 글쎄요. 저는 멜로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5 가: 그 영화배우는 _____ 눈물 연기를 정말 잘해요.

나: 그래서 에릭 씨가 그 배우를 아주 좋아하는군요.

6 가: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 혼자 _____ 고 있을 거야?

나: 알았어. 지금 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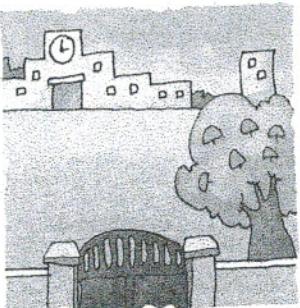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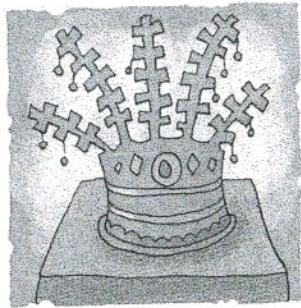
活用
어디에 쓰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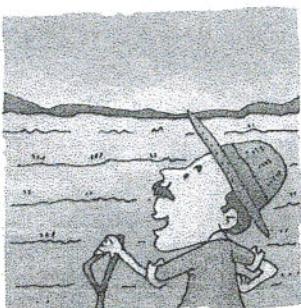
우리 학교의 교 木 은 은행
나무입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등 山 을
합니다.



임금님이 쓰시던 金 관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대대손손
내려온 土지를 소중히 여기
십니다.

수서를 알아봅시다



똑같이 생긴 반가사유상이 일본에도 있다고요?

반가사유상

“앗, 이럴 수가!”

우리나라 국보 제83호인 금동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본 일본인들은 크게 놀랐어요. 이 반가사유상이 일본의 국보 제1호인 목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반가사유상이란 한쪽 다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불상을 말해요. 일본의 국보 제1호인 목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모든 일본인들에게 사랑받는 예술 작품이에요.



★ 어떻게 불상을 만들었을까요?

먼저 밀랍에 송전을 녹여 섞은 반죽으로 원형을 만들어요. 전흙을 개서 원형에 단단히 바른 다음 햇빛에 말려 굽지요. 그럼 밀랍은 녹고 흙으로 된 주형이 완성돼요. 여기에 금속을 부으면 원하는 불상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일본의 불상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모양, 얼굴, 팔, 손, 발 위의 옷 주름 등이 완전히 똑같지요. 이는 일본의 국보 제1호인 목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우리나라에서 건너갔거나 백제나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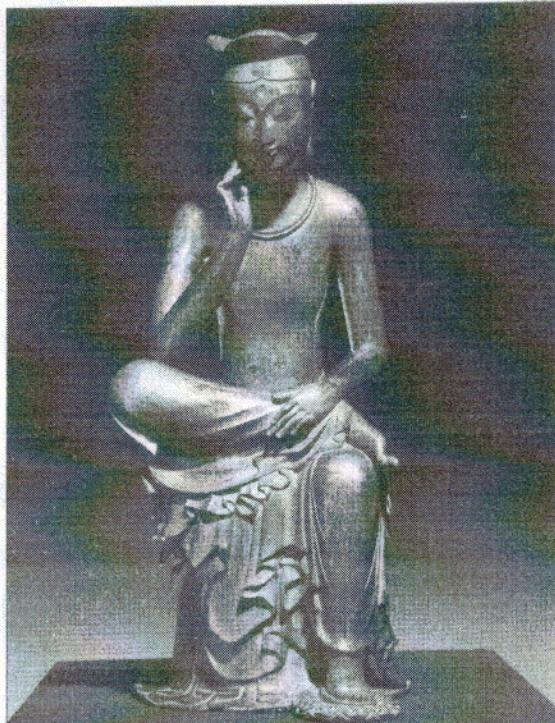
라의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라는 긴 이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금동'이란 구리를 주 재료로 하고 거기에 금가루를 입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륵보살'은 불교의 보살 이름이고, '반가사유상'은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가사유상은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오랜 세월 중국의 불상을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요. 하지만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불상이에요.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요란한 장식이 없고 형태가 간결해서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줘요. 또한 뛰어난 조형미 때문에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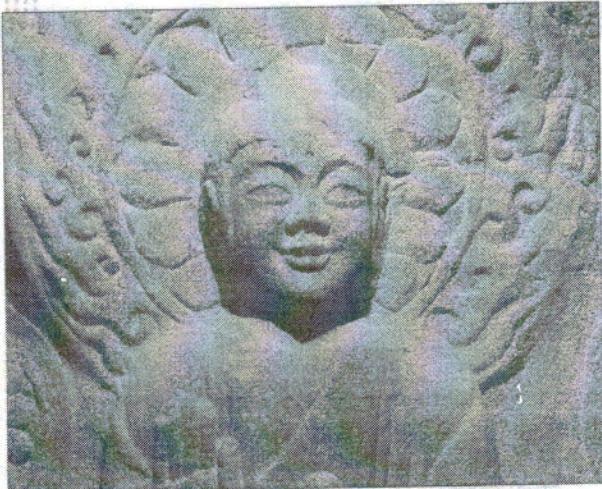
반가사유상은 누구나 인정하는 우리 조상들의 탁월한 예술성과 독창성을 보여 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랍니다.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불상이다.

서산마애삼존불은 왜 미소를 짓고 있을까?

백제의 미소(서산마애삼존불)



▲ '백제의 미소' 라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
빛의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달라진다.

충청남도 서산시 가야산 계곡의 바위 면에는 천의 얼굴을 가진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어요. 바로 국보 제84호로 지정된 서산마애삼존불상이지요.

서산마애삼존불상은 7세기 백제 사람들이 만든 불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마애불 중 가장 뛰어난 불상이에요. 얼굴 가득히 자애로운 미소를 띠

고 있어 '백제의 미소'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서산마애삼존불상은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웃는 모습이 달라져요. 날이 어두워지면 근엄한 표정을 지어 보이다가도 해가 뜨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어떤 때는 빙그레 웃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떤 때는 활짝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이렇듯 빛의 방향까지 생각해서 절벽에 불상을 세운 백제인의 슬기 가 놀라울 따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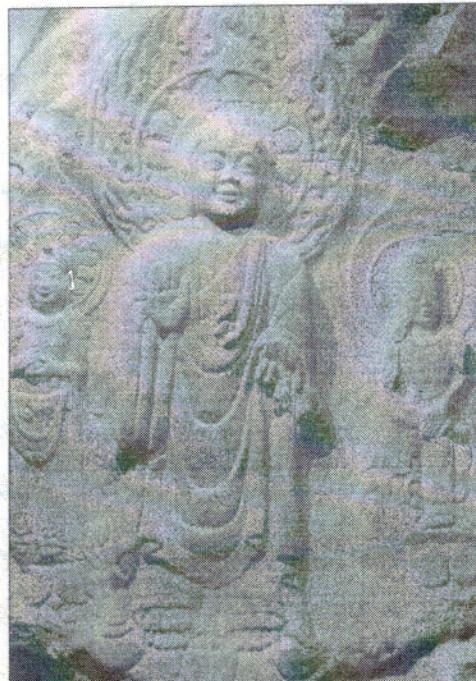


서산마애삼존불상에는 세 개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어요. 본존 옆 래를 가운데 두고 한 보살은 서고 다른 한 보살을 두 다리를 포갠 채 앉아 있지요. 이 중 본존의 얼굴이 가장 잘 보이도록 두드러져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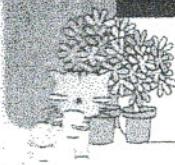
머리에 관을 쓰고 오른쪽에 서 있는 보살은 본존과 같이 얼굴에 살이 올라 있으며 미소를 짓고 있어요. 왼쪽에 앉아 있는 보살 역시 입 가에 미소를 띠고 있는데, 왼손으로 발목을 잡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턱을 받치고 있는 모습에서 백제인들의 세련된 조각 솜씨를 느낄 수 있어요.

서산, 태안, 당진 앞바다는 백제가 중국과 교류하던 관문이에요. 높은 언덕 위 바위에 새겨진 서산마애삼존불상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요.

아마도 백제인들은 서산마애삼존불상을 통해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펼쳐져 있는 바다를 바라보며 해양 왕국을 꿈꾸었겠죠?



09_한잔(을) 하다 10_한턱(을) 내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말하세요.

보기

한잔을 하다 찬을 올리다

한턱을 내다

1. 가: 민수 씨, 이번에 시험을 잘 보면 _____.

나: 네, 알겠어요. 기대하세요.

2. 가: 교수님, 제가 _____.

나: 그래.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어.

3. 가: 오늘 제 생일인데 같이 저녁 먹을까요?

나: 좋아요. 수진 씨가 _____, 그럼 저는 영화를 보여 줄 게요.

4. 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_____.

나: 좋아요. 그런데 맥주를 마실까요? 소주를 마실까요?

5. 가: 어제 저녁에 전화도 안 받고 어디에서 뭐 했어요?

나: 기분이 안 좋아서 친구들과 _____고 있었어요.

|역국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나:

가:

나:

▶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1. 현재 전해지고 있는 금속 활자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서양 최초 금속 활자인 구텐 베르크 금속 활자보다 70여년이나 앞선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이것은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을 보수하다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 (1번의 답)이것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4. 고구려 고분 벽화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 둘째는 (), 셋째는 ()입니다.
5. () 벽화에는 고구려 귀족들이 죽기 전에 생활하던 모습을 그린 그림 들이 많습니다. 예) 무용총, 수렵총, 각저총
6. () 벽화에는 동심원 왕(王)자, 연꽃, 불꽃, 화초 구름 등의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 연화총, 환문총, 동명왕를
7. () 벽화에는 말 그대로 사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신이란 동서남북 4 방위의 수호신을 말합니다. 예) 강서대묘, 강서중묘
8. 고구려 벽화가 15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인 비결은?

▶ 아래 문장에 쓰인 한자를 읽어보세요.

父母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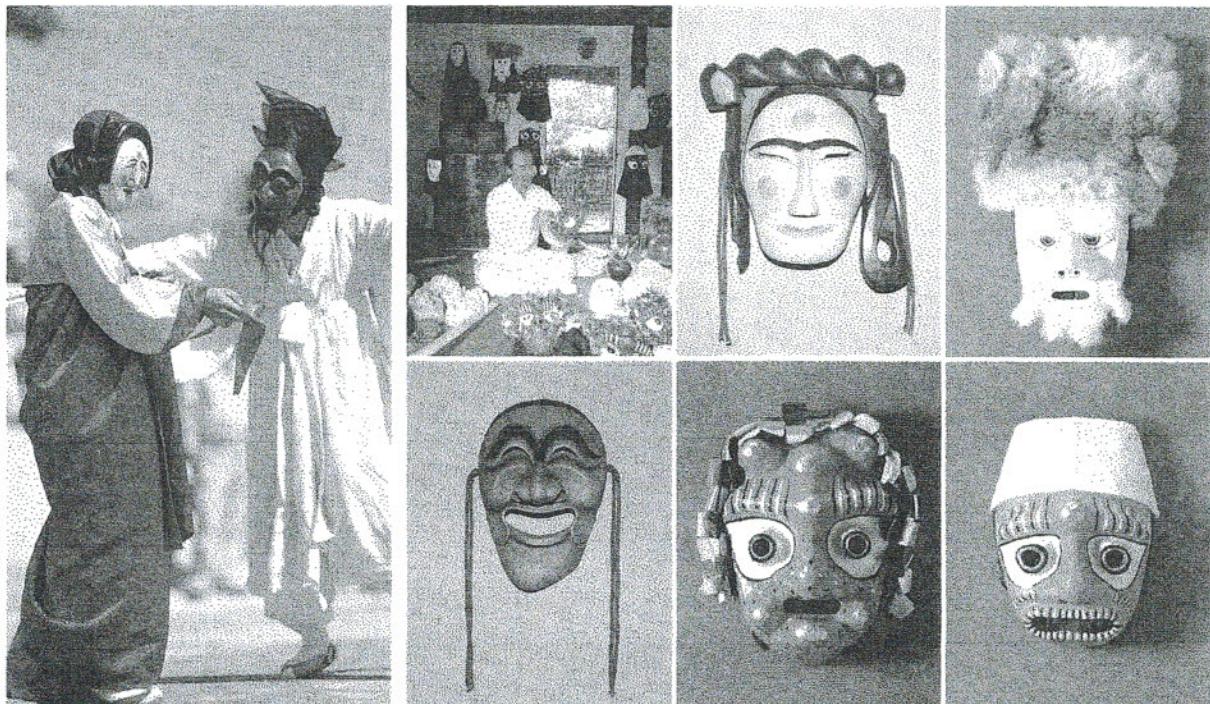
삼촌은 母校에 계신 선생님들 찾아뵈었습니다.

兄은 태권도를 매우 잘 합니다.

라이트 兄弟는 비행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들입니다.

하호탈

Hahoe Mask



Is there a traditional dance in your native country performed with masks? There is a special dance performance in Korea done wearing traditional masks called tal. The tal come in various shapes like animals and human faces with diverse expressions. The most representative and well-known of these masks is the Hahoetal. This mask originated in the Hahoe village in Kyeongsangbuk-do (province) near Andong city, and it was first made for people in the lower classes to mimic and make fun of people of the upper classes. There are 11 different types of tal, and there are all different forms of these masks including women, upper class scholars, and mon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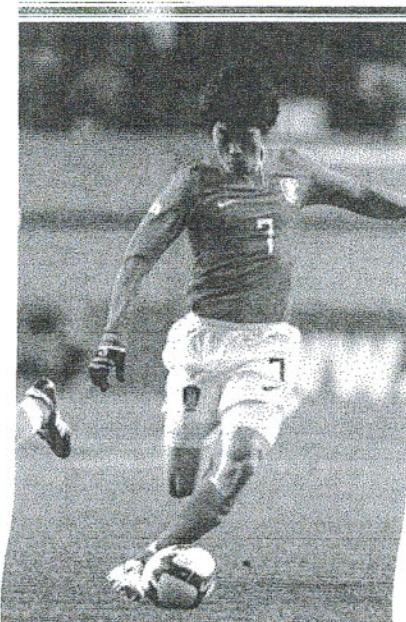
숫자의 의미

NUMBERS IN KOREA

What is your favorite number?

In the United States, people think of the number 7 as a lucky number. Then, do you think all the different countries of the world think that the same number brings good luck?

In Korea, the number 3 is considered to be a “perfect” number. That’s why people often play three rounds of games like rock-paper-scissors, instead of just playing just one round. On the other hand, people in



China think of the number 8 as a lucky number. This is because there is a Chinese character that means “gaining wealth” that is pronounced the same way as the character for number 8. The Chinese people love the number 8 so much th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Beijing Olympics in 2008 was held on August 8th, 8:08pm!



Do you know what the lucky numbers of other countries are? Let’s find out!



그리스의 아테나 언덕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한 파르테논 신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힌다. 세계 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이 완벽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은 바로 이 건물이 황금비에 맞춰 지어졌기 때문이다. 황금비란 가로, 세로의 두 길이가 1:1.618의 이상적인 비율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 황금비를 이용해 지어진 파르테논 신전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정적으로 보인다. 황금비는 이러한 이유로 현대 우리의 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신용카드, 텔레비전 화면 등이 모두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다.

석빙고

자연 냉동고인 석빙고가 더운 여름에도 얼음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같은 크기의 돌을 아치 모양으로 쌓아 올린 천장 때문이다. 보통 석빙고의 천장은 1~2m의 간격을 두고 4~5개의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사이 사이에는 빙 공간이 있다. 이 빙 공간이 석빙고 내부의 더운 공기를 가두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석빙고는 더운 여름에도 얼음을 저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3세에 피아노를, 6세에 첼로를 시작해 11세에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 위원 10명의 전원 일치로 대상 및 현대 음악상 수상자로 선정된 천재 첼리스트 장한나가 지휘자로 데뷔했다.

지난 27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첼리스트 장한나가 지휘대에 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제1회 성남 국제 청소년 관현악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한국과 중국, 독일의 연주자로 구성된 연합 청소년 관현악단을 이끌고 베토벤 교향곡 7번과 코리올란 서곡 등을 연주했다.

첼로와 지휘의 차이를 묻는 나의 질문에 그녀는 활하게 웃으며 "첼로 연주와 지휘의 차이요? 제 손으로 소리를 만든다는 것과 다른 연주자 100명의 몸과 마음, 영혼을 빌려서 소리를 만드는 것의 차이 아닐까요?"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첼리스트가 왜 갑자기 지휘자로 나선다는 것일까?

그녀는 작곡가의 대표작은 거의 오케스트라곡이라 첼로만으로는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오래 전 지휘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4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지휘 공부를 해 왔다고 한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을 어린이를 위해 쓰고 싶었다며 대학 입학 때부터 즐곧 사회 공헌 방법을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지휘를 하면서 작곡가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다고 했다. 첼로를 연주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브람스의 특징을 교향곡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것은 자신의 첼로 연주를 더 성숙하게 했다고 한다. 매일 연주와 지휘 연습을 5시간 이상 꾸준히 하면서 점점 음악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